

2026
Summer

좋은병원들

안성의화 좋은병원

Vol.81

GOOD HOSPITAL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GOOD HOSPITALS MAGAZINE

2026 Summer
Vol.81



표지

A long journey

作 남궁 정화



좋은병원들
소식지
바로 보기

발행일

2026. 7. 1

발행인

은성의료재단 이사장 구자성

발행처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삼정병원, 좋은선린병원

좋은애인요양병원, 좋은연인요양병원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좋은부산요양병원

좋은주례요양병원, 좋은선린요양병원, 좋은사랑요양병원

TEL.(051)310-9419 FAX.(051)316-9295

www.goodhospital.or.kr

편집장

좋은문화병원 내분비내과 안준협

편집위원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팀 이흥곤

좋은문화병원 기획홍보팀 이윤희, 배지혜

좋은삼선병원 기획홍보팀 유정화

좋은강안병원 기획홍보팀 이상미

좋은삼정병원 기획팀 김경진

좋은선린병원 기획총무팀 송육진

좋은애인요양병원 사회사업실 백은재

좋은연인요양병원 사회사업실 박현수

좋은리버뷰요양병원 사회사업실 공보경

좋은부산요양병원 행정부 최진기

좋은선린요양병원 사회사업실 김민정

좋은사랑요양병원 사회사업실 이나령

편집·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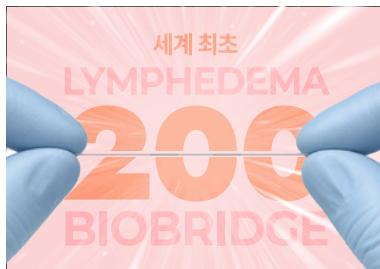
디자인글꼴

TEL. (051) 636-1215 www.ggad.co.kr

CONTENTS



06



10

시작과 방향

인사말

- 06 上善若水(상선약수)
양희영 좋은삼정병원 병원장

숫자로 보는 좋은병원들

- 10 좋은문화병원 김주형 센터장
림프부종 바이오브릿지 수술 200례 달성

좋은병원들 발자취

- 12 ① 좋은삼선병원 개원 31주년
14 ② 좋은강안병원 개원 21주년
16 ③ 좋은삼정병원 개원 20주년

건강과 의료

의학칼럼

- 18 ① B형 간염
김동준 좋은문화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22 ② 고혈압
임지훈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26 ③ 어깨 회전근개 파열
방진영 좋은강안병원 정형외과 과장
30 ④ 면역력 관리
이규민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34



48

좋은 의사를 만나다

34 이상수 좋은강안병원 체장담도센터장

의료기술 & 혁신 스토리

38 AI 기술로 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강안병원

좋은센터 소개

42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시술센터

사람과 이야기

좋은 이야기

46 ① 좋은병원들, 에이전틱 AI로 스마트 병원 혁신 추진

48 ② 좋은삼선병원 관절센터, 환자와 함께 걸은 봄날의 회복길

좋은사람들 인터뷰

50 ① 구정희 은성의료재단 회장·사랑의 의사회 이사장

52 ② 박중선 청년 작가

54 ③ 박순임 좋은강안병원 미화부

좋은사람들 칭찬이야기

56 ①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

58 ②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

지역과 함께

사회공헌

60 ① 좋은문화병원, 지역 의료기관 최초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선정

62 ② 좋은문화병원,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 후원



68



76

작은 여행, 큰 이야기

부산이야기

- 64 부산을 걷다 3
기억과 공존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여행을 떠나요

- 68 사랑도 지리산
바다 위 걷는 황홀한 호사

좋은병원들 자랑거리

좋은병원들 이야기

- 76 ①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 의료의 본질과 미래를 말한다
78 ② 제2회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 성료
80 ③ 좋은병원들, 자랑대회 '자랑은 못말려'
82 ④ 좋은삼선병원, 부산 지역외상거점병원 선정

84 좋은병원들 뉴스

94 언론에 비친 좋은병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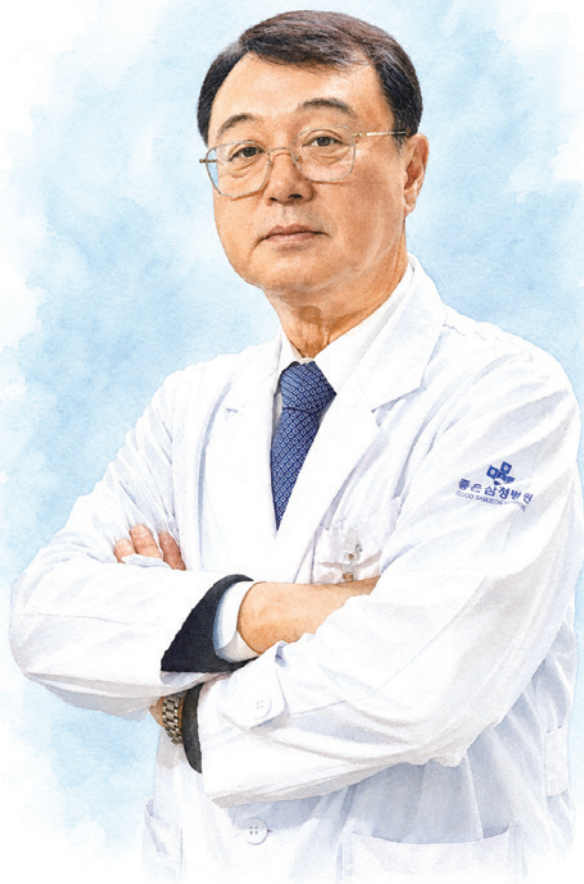
98 병원진료안내

99 독자참여

上善若水

상 선 약 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양 희 영

좋은삼정병원 병원장

세상이 참 어지럽다.

국내 정치 상황은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뉴스를 접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대학 시절, 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의 저서 『제3의 물결』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오늘날 21세기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엘리트 집단이 독점하던 지식과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특히 의사 집단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대목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던 나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지금, 그의 예측은 현실이 되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AI와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의학 정보를 접하며, 어떤 분야에서는 의사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기도 한다. 토플러의 통찰은 분명 놀라울 만큼 정확했다.

얼마 전에는 또 다른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를 읽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고 세상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미래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 영생까지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과연 그의 예측은 맞을까. 『호모 데우스』는 커녕, 오늘날 인류는 여전히 편을 가르고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이념과 종교, 국가와 민족의 이름으로 서로를 증오한다. 인류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칼 마르크스가 말한 변증법적 유물론, 즉 정(正)과 반(反)이 부딪혀 합(合)으로 나아가는 역사 발전의 과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은 오히려 퇴화하고 있으며 결국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다. 때로는 영장류에게 핵무기를 쥐여준 것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물론 천주교 신자인 나로서는 이러한 사상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평생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술실에서 살아온 외과의사로서, 대량살상무기가 순식간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오늘날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인류의 미래가 과연 진보와 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불을 다루게 되었고, 언어를 만들었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가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와 문명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지금도 작은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타인을 배척한다. 21세기가 된 지금도 한반도 북쪽에서는 우상화된 체제가 핵무기로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질병, 전쟁, 기근.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와 늘 함께해 온 숙명과도 같은 존재다. 인간은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다. 인간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는 약자를 돌보고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선한 의지가 분명 존재한다. 집단이 되면 이념에 휩쓸리고 상대를 배척하는 본성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함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우리 의료인들은 어떠한가.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져도 병든 사람을 마주할 때면 연민과 사명감을 품는다. 그것이 크든 작든, 환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쩌면 인류의 희망도 바로 그런 작은 선의에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른다.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듯이 말이다.

문득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이 떠오른다.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상선약수 수선리만물이부쟁 처중인지소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꺼리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어쩌면 물과 같은 자세가 아닐까.

질병과 고통 앞에서 인간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인류의 미래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지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란 결국 그런 선한 의지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인지도 모른다. 오늘도 우리는 수술실과 병실, 진료실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거창한 이념이나 화려한 기술보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존중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말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의료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해야 한다. 그것이 의료인의 길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믿는다.

上善若水.

참 좋은 말이다.

낮은 곳을 흐르는 물처럼

의료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향하는

가장 선한 의지의 실천 현장입니다.



좋은문화병원 김주형 센터장 림프부종 바이오브릿지 수술 200례 달성

세계 최초

LYMPHEDEMA

200

BIOBRIDGE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김주형 센터장이 림프부종 치료를 위한 인공림프관 바이오브릿지 초미세수술 200례를 세계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2024년 7월 첫 시행 이후 단일 의료기관 및 단일 집도의 기준 전 세계 최다 기록입니다. 특히 바이오브릿지를 최초 개발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부속병원의 실적을 넘어선 성과로, 한국 림프부종 치료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림프부종은 유방암, 부인암 등 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돼 팔과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는 난치성 질환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김주형 센터장이 시행하는 바이오브릿지 초미세 수술은 지름 0.3~0.4mm의 나노 지지체를 삽입해 손상된 림프관 사이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특히 기존 치료만으로 개선이 어려웠던 중증 림프부종 환자들에게서 사지 돌레 감소와 탄력 회복 등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00례 달성의 핵심은 김주형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정립한 표준 수술 프로토콜에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른 바이오브릿지 삽입 위치와 개수, 고정 기법 등을 체계화해 수술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좋은문화병원은 보다 전문적인 통합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수), 림프 부종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앞으로도 림프부종센터를 중심으로 진단부터 수술, 회복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초미세수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삼선병원 개원 31주년

좋은삼선병원이 개원 31주년을 맞아 환자와 직원,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1년간 지역 주민의 곁에서 건강과 일상을 지켜온 여정을 되새기고, 축적된 의료 경험과 따뜻한 돌봄을 바탕으로 더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31년의 동행

지역과 함께한 감사의 시간



개원기념식은 지난 5월 20일(수), 신관 8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임직원들은 좋은삼선병원이 걸어온 시간을 함께 되새기며, 환자 중심의 진료와 따뜻한 돌봄이라는 병원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개원 당일에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개원 선물 나눔이 진행되었으며, 환자와 직원에게 특식이 제공돼 감사와 축하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또한 개원 31주년을 기념해 병원 임직원과 내원객을 위한 커피차 이벤트도 마련되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음료를 나누며 서로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고, 병원 곳곳에는 개원을 함께 축하하는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개원 31주년을 기념해 연혁 사진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좋은삼선병원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순간들이 담겨,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비롯해 커넥트현대 건강아카데미, 사상구노인복지관 건강강좌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하였습니다.

좋은삼선병원의 31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켜온 약속의 기록입니다.



좋은강안병원 개원 21주년
Good Gang-An Hospital 21st Anniversary

좋은강안병원 개원 21주년

좋은강안병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아 임직원과 환우, 병원의 성장을 함께해 온 지역 인사들이 참석 가운데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중증질환 치료를 중심으로 전문 의료 역량을 강화해 온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지역을 대표하는 중증치료 중심병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1년의 신뢰

따뜻한 상생과 새로운 도약



개원기념일을 전후해 병원 곳곳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4월 15일(수) 오전에는 병원 대강당에서 개원기념식이 개최되어 지난 21년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특별 영상 상영과 장기 근속자 및 모범 직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본관 로비에서는 환자와 내원객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가 열려 따뜻한 위안과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이어 병동에서는 간호부 주관으로 ‘강안병원 알기 OX 퀴즈’가, 외래 로비에서는 ‘축하글 남기기 & 행운의 룰렛’ 이벤트가 진행되어 풍성한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4월 16일(목)에는 허현 병원장과 간호부, 기획팀, 친절위원회가 병동을 방문해 입원 환자들에게 감사와 쾌유의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원내 문화 행사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습니다. 신관 1층 로비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 아이들의 그림 전시회가 열려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임직원과 가족 등 90여 명은 온천천 일대에서 ‘플로깅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치며 ESG 실천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했습니다.

2005년 개원 이후 암센터, 유방센터, 갑상선두경부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질환 진료 역량을 견고히 다져온 좋은강안병원은, 이제 스마트병원 진료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선도하며 첨단 의료와 따뜻한 공감으로 더 건강한 내일을 열어갈 것입니다.



좋은삼정병원 개원 20주년

좋은삼정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병원 가족과 환우, 지역 이웃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해 온 구성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사회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환자 중심 병원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0년의 헌신

지역과 함께한 새로운 도약



개원 20주년 기념식은 지난 3월 31일(화) 진행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좋은삼정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시간을 되새기며, 환자 중심의 진료와 따뜻한 의료서비스라는 병원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병원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좋은삼정병원은 대한 적십자사 울산지사와 함께 ‘사랑의 제빵 봉사’를 진행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였으며, 태화강 일대에서는 ‘한마음 걷기 대회 및 플로깅’을 개최해 임직원 화합과 환경보호의 의미를 더하였습니다.

내원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캠페인도 마련되었습니다.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 콩팥 건강 홍보 캠페인과 개원 20주년 기념 럭키드로우 행사가 진행되었고, 간호부 주관의 ‘GOOD 건강 상담소’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간호사의 날과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나눔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임직원과 내원객, 보호자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병원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온기를 더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B형 간염

“나는 보균자일 뿐?”

안일한 믿음이 간암을 키울 수 있습니다



김 동 준

좋은문화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소화기 질환, 간 질환, 췌장·담낭 질환
상·하부 내시경 시술

진료 예약 및 상담 1577-1359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내시경	진료	내시경	진료	내시경	진료
오후	진료	내시경		내시경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둘째주 토요일 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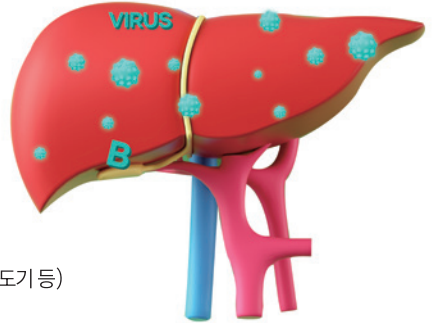
간염은 단순한 염증 질환이 아니라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국내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B형 간염은 “나는 그냥 보균자일 뿐”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에 관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소화기내과 김동준 과장과 함께 B형 간염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Q&A로 알아봅니다.

전파 경로와 증상



- ✓ 산모에서 신생아로의 주산기감염
- ✓ B형간염바이러스 전염력을 가진 자와 성적 접촉
- ✓ 감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 ✓ 사용 중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 오염 도구(주사 바늘, 면도기 등)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울만큼 자각증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피로, 발열, 근육통, 관절통, 식욕상실, 매스꺼움 및 구토, 황달, 헛배 부름 등이 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라는 말, 정말 괜찮은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과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지만 간 수치가 정상이고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흔히 ‘건강한 보균자’, ‘단순 보균자’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표현 대신 ‘만성 B형 간염 비활동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더라도 바이러스가 간세포 안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지속하거나, 어느 순간 다시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보균자일 뿐”이라는 말은 병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위험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고 증상이 없어도 위험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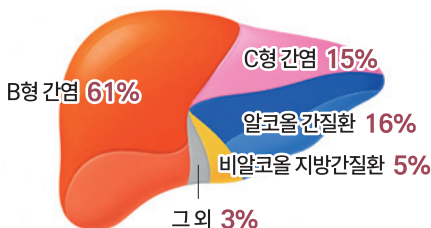
네. 간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B형 간염은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어도 혈액 속 바이러스 수치가 증가하거나, 간세포 내부에서는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자신을 ‘건강한 보균자’라고 믿고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다가, 바이러스가 다시 활발해지는 재활성화기에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B형 간염은 생활습관만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바이러스의 활동성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형 간염이 간암과 얼마나 관련이 있나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B형 간염은 국내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안에서 조용히 증식하며 간 조직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B형 간염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의 간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간암의 원인!

B형 간염이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성화된 경우 지속적으로 간세포를 손상시켜 간경변, 간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2023.7.25.)

임신을 계획 중인 B형 간염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신 전후로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형 간염은 엄마에게서 아기에게 전달되는 수직 감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출산 직후 아기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 대부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임신 3분기부터 예방적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간염약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태아에게 안전한 약제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B형 간염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핵심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간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병행해 바이러스의 활동 여부와 간세포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B형 간염 여부는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다”는 방심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증상이 없어도 최소 6개월에 한 번, 혈액검사와 간 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B형 간염은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조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대상 : 모든 영유아, 과거 감염력 또는 예방접종력이 없는 성인
- ▶ 시기 : 3회(첫 접종 후 1개월, 6개월 후 접종)



고혈압

여름철 더 신경 써야 할
고혈압 관리법

+ Good Samsun +



임 지 훈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심혈관 중재시술, 심부전, 심인성 쇼크
심장초음파, 판막질환, 폐고혈압

진료 예약 및 상담 051-322-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시술	진료	진료	시술	시술	2,4주 진료
오후	진료	시술		진료	진료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 섭취가 불규칙해지면서 혈압이 평소와 다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이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잰 혈압만으로 안심하거나 걱정하기보다, 평소 가정에서 자신의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 임지훈 과장과 함께 고혈압의 위험성과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고혈압은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나요?

고혈압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아프거나 불편한 곳이 없다 보니 방치하기 쉽지만, 높은 혈압은 서서히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신부전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다가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어 고혈압을 흔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데도 장기가 손상될 수 있나요?

네. 고혈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증상 장기손상’입니다. 환자가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 뇌, 혈관, 신장, 눈의 망막 등에 작은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이런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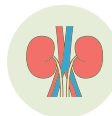
어지러움 & 두통이 자주 발생

가슴 두근거림 & 숨이 찬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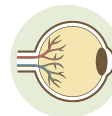
코피가 자주 나거나 시야가 흐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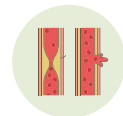
심근경색·뇌졸중
위험증가



신장질환
악화



시력
저하



혈관
노화 촉진

예를 들어 심장이 두꺼워지는 좌심실 비대, 신장 기능 저하, 망막 혈관 손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손상이 누적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신부전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651만 명에서 2023년 746만 명으로 4년간 14.1% 증가했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잠재적 환자까지 포함하면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가 약 1,300만 명, 전체 성인 인구의 30.1%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20세 이상 고혈압 유병자
성인 10명 중 **3명**

병원에서 잦 혈압과 평소 혈압이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혈압은 시간, 긴장도, 활동량, 카페인 섭취, 흡연, 수면 상태 등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한 번 잦 혈압만으로 평소 혈압 상태를 완전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백의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입니다. 백의 고혈압은 병원이나 진료실에서 긴장해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가면 고혈압은 평소에는 혈압이 높는데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임지훈 과장은 “대부분 자신의 정상 혈압 수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평소 자가 혈압 측정을 통해 자신의 혈압 상태를 확인하고, 고혈압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름철에는 혈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여름에는 더위로 땀 배출이 늘고 수분 섭취가 불규칙해지면서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의 무더위와 실내 냉방 환경을 반복적으로 오가면 혈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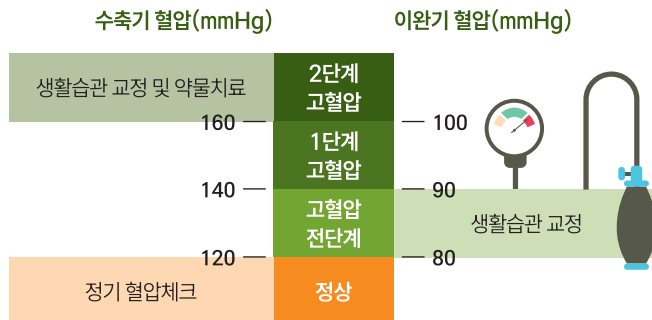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평소 혈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등받이에 기대어 앉은 상태에서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측정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셨거나 흡연을 한 직후,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으므로 바로 측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과 절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무더운 시간대의 과도한 야외 활동은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부전이나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혈압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을 막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위, 탈수, 냉방 환경 등으로 혈압 변동이 커질 수 있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잦은 혈압이 전부는 아닐 수 있는 만큼, 평소 가정에서 혈압을 꾸준히 측정하고 자신의 평균 혈압을 아는 습관이 고혈압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QR코드 통해
고혈압 관련 정보(의학칼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정확한 진단부터 맞춤형 비수술 치료,
최신 생체 보강술까지 단계별 치료 지침



방 진 영

좋은강안병원 정형외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어깨 및 팔꿈치 관절 특화 진료(고난이도 어깨
팔꿈치 수술 / 최소 침습 어깨 관절내시경 수술 /
어깨 관절 인공관절수술 / 근이전술), 스포츠 손상
상지 및 하지 질환, 골절 및 외상

진료 예약 및 상담 051-625-09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수술	진료	수술	진료	수술	격주
오후	수술	진료	수술	진료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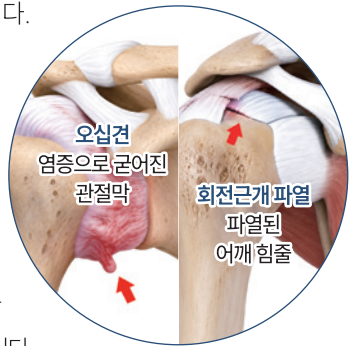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녹음이 짙어지고 야외 활동과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활기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면 골프, 테니스, 수영 등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을 즐기다가 발생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합니다. 많은 분이 이를 운동 후에 오는 단순 근육통이나 흔히 아는 오십견 정도로 가볍게 여겨 방치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어깨를 무리하게 움직이다가 핵심 힘줄이 손상되는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제때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파열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관절염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문답을 통해 어깨 건강을 위협하는 회전근개 파열의 올바른 진단과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흔히 오십견을 떠올리는데, 회전근개 파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팔이 스스로 올라가는가’입니다.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 자체가 굳어 타인이 도와주어도 팔이 잘 안 올라가지만, 회전근개 파열은 특정 각도에서만 통증이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이 팔을 붙잡고 올려주면 끝까지 위로 잘 올라갑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은 뒷짐을 지거나 옷을 입을 때처럼 팔을 돌리는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마다 어깨 통증이 더 심해져서 잠을 깨는데, 왜 누워있을 때 더 아픈 걸까요?

낮에는 서 있거나 앉아 있어서 중력에 의해 어깨 관절 간격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만, 밤에 누우면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상한 힘줄이 뼈 사이에 더 강하게 압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밤에 통증으로 잠에서 깨는 빈도가 늘어난다면 힘줄 손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반드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힘줄이 완전히 끊어졌는데도 팔을 위로 들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신기하게도 힘줄이 끊어졌는데 팔이 잘 올라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깨에는 무려 4개의 힘줄이 있어서, 메인 힘줄 하나가 끊어져도 주변의 다른 힘줄들과 가슴 근육이 대신 힘을 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 근육들이 무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 이대로 방치하면 멀쩡하던 나머지 힘줄들까지 차례대로 파열될 수 있습니다. “팔이 올라가니까 괜찮겠지”하고 진단을 미루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나요?

파열 크기가 작은 초기 단계나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치료의 원칙입니다. 주사 치료, 약물 치료, 체외충격파 같은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힘줄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합니다. 이를 통해 힘줄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깨 수술 후 재파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령 환자나 파열을 오랜 기간 방치한 분들은 힘줄이 이미 종잇장처럼 얇아지고 부실해진 상태입니다. 이 약해진 힘줄을 무리하게 당겨서 뼈에 묶어놓으면 어깨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뜯어지는 재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술이 단순히 끊어진 곳을 ‘연결’하는 데만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환자의 힘줄 상태에 맞춘 ‘최신 생체 재료 보강술’을 병행하여 힘줄의 장력을 분산시키고 높은 재파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보강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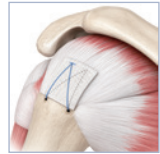
▶ **동종 진피 이식술(힘줄의 구원투수)**: 힘줄이 너무 많이 상해서 원래 위치까지 당겨오기 힘들 때 사용합니다. 인체 조직에서 면역 성분은 제거하고 콜라겐 구조물만 남긴 특수 이식물로, 찢어진 힘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하거나 얇아진 힘줄 위에 덧대어 전체적인 두께를 확실하게 보충해 줍니다.



▶ **리제네텐 패치(힘줄의 천연 비료)**: 힘줄이 붙어는 있지만 질이 나빠져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소의 아킬레스건에서 추출한 콜라겐 패치로, 힘줄 위에 덮어두면 새로운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 **바이오펜(힘줄의 튼튼한 안감)**: 힘줄을 붙잡아 주는 지지대 역할과 재생 능력을 합친 하이브리드 보강재입니다. 수술 직후 힘줄이 다시 끊어지지 않게 물리적으로 꼭 잡아주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이 잘 차오르도록 돕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어깨 관리법이나 찢질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깨 힘줄은 혈관 분포가 적어 스스로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마모를 막고 유연성을 기르는 관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일상 활동이나 운동 전후로 수건이나 가벼운 막대를 잡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팔을 천천히 움직여주는 ‘어깨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활동 후 어깨가 욱신거리며 불이 난 것처럼 열감이 도는 급성 통증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혀야 하고, 만성적으로 어깨가 빠근하고 굳어있는 느낌이 들 때는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QR코드 통해
어깨 회전근개 파열 관련 정보(의학칼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 문턱에서 더욱 중요한 면역력 관리

+ Good SamJeong +



이 규 민

좋은삼정병원 호흡기내과 과장

전문 진료 분야

폐렴, 폐결절,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 폐결핵
기타 호흡기질환

진료 예약 및 상담 052-220-7500

진료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진료	진료	진료	진료	진료	격주
오후	진료	진료	진료	휴진	휴진	

※ 의료진의 학회 참석 및 연수 등으로 인해 진료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일 진료시 전화로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은 겨울철에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도 호흡기 건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호흡기 질환은 흔히 겨울철 질환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여름철에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내 공기가 차갑고 건조해지고, 실외에서는 높은 기온과 미세먼지, 오존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이 호흡기를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무더위로 인해 체력이 저하되고 탈수가 발생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면역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기온이 상승하면 일부 호흡기 질환 환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여름철에도 폐렴을 비롯한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를 적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적인 냉방 환경과 실내외 급격한 온도 차가 반복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냉방기 사용은 호흡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6월부터는 본격적인 냉방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에어컨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과도한 냉방이 체온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실외와 차가운 실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 자율신경계에 부담이 커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얇은 옷차림으로 장시간 냉방 환경에 노출되면 목통증이나 기침, 콧물, 두통 등이 나타나는 이른바 ‘냉방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흡기 점막은 외부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데, 공기가 건조해지면 점막 기능이 약해져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에어컨 내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기와 냉방병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감기인지 냉방병인지 헷갈려 병원을 찾습니다. 초기에는 콧물, 기침, 몸살, 두통 등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 혹은 기침이 심해지거나 호흡곤란이 나타난다면 단순 냉방병으로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같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은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발생하는 비말(침방울)로 전파되며, 바이러스는 문손잡이나 휴대전화 같은 물건 표면에서도 일정 시간 생존할 수 있어 접촉을 통한 간접 감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은 무엇인가요?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한 건강기능식품보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냉방병	감기
원인	실내외 등 온도 차이	바이러스 감염
전염성	없음	있음
주요 증상	발열을 제외한 호흡기 증상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
소화기 증상	자주 동반(소화불량, 설사 등)	상대적으로 적음
회복 기간	환경 조절 시 단시간 내 호전	수일 이상 지속
치료 방법	환경 조절, 휴식, 수분 섭취 등	약물 치료, 휴식, 수분 섭취 등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을 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호르몬과 면역 조절 물질이 분비되어 신체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중요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기간의 실천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호흡기 건강 수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실내 환경 관리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방 온도는 지나치게 낮추지 말고 실내외 온도 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환기와 에어컨 필터 청소를 통해 깨끗한 공기를 유지해야 하며, 실내 습도는 40~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호흡기 점막 보호에도움이 됩니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생활화해야 하며,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 코로나19,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예방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수분 섭취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오랜 시간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작은 건강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QR코드 통해
면역력 질환 관련 정보(의학칼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첫 기차 타고 오던
지방 환자들 눈에 밟혀...”

부산행 택한 췌장담도 명의



좋은강안병원
췌장담도센터장
이상수

‘세계 최초 초음파내시경 유도하 담낭배액술(EUS-GBD) 성공’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30,000례 이상’

‘국내 두 번째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석학회원(FASGE)’

이처럼 화려한 수식어들의 주인공은 국내 최고의 췌장·담도 질환 명의로 불리는

좋은강안병원 이상수 췌장담도센터장입니다.

“이제 굳이 서울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25년간 담도췌장센터장을 역임하며 국내 치료를 선도해 온 그가 연고도 없는 부산행을 택한 배경에는 환자를 향한 깊은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지방에서 올라오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올라와 진료를 받고, 다시 몇 시간을 이동해

집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췌장암이나 담도암 환자들에게 장거리 이동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동료들의 만류도 적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기량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지역사회 의료에 기여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의료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울경 환자들이 서울 원정 진료 없이도 집 근처에서 최고 수준의 정밀 진단과 고난도 내시경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쫓기듯 환자를 보던 서울과 달리, 부산에서는 환자들에게 종이에 그림을 그려가며 병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의사로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수 센터장은 국내 ‘인터벤션 EUS’ 분야를 대표하는 의료진 중 한 명입니다. 과거 진단 목적에 머물렀던 내시경초음파를 다양한 시술에 활용하며 치료의 새 영역을 열었습니다.

A portrait of a middle-aged man with dark hair and glasses, wearing a dark blue medical scrub with a red V-neck collar. He is gesturing with his right hand while speaking. The background is a blurred office setting.

LEE SANG-SOO

-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 서울아산병원 담도·췌장센터장 역임
 -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석학회원(FASGE)
 -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30,000례 이상
 - 내시경 초음파 중재시술(Interventional EUS) 1,000례 이상
-

특히 세계 최초로 내시경초음파를 이용한 담낭배액술을 성공시키며 국내외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시술은 급성 담낭염 환자 중 고령이나 기저질환으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시한 획기적 기술로 평가받습니다. 덕분에 그는 미국소화기내시경학회 석학회원에 국내 두 번째이자 최연소로 선정되며 국제적으로도 학문적,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췌장·담도 진료 분야는 패러다임의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대표적인 난치암으로 꼽히지만, 내시경초음파의 발전은 조기 진단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과거 CT나 MRI로도 발견하기 어려웠던 1cm 미만의 미세한 병변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상수 센터장은 최근 진료 과정에서 1cm 미만의 초기 췌장암 환자를 발견해 수술로 연결한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담도암이나 췌장암 환자의 경우 종종 담도가 막히면서 황달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몸 밖으로 연결된 배액관을 차야 했던 방식(PTBD)이 주로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담도배액술(EUS-BD)이 발전하면서 내부 배액이 가능해졌습니다.

체외 배액관이 사라지면서 환자들은 샤워나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수 센터장은 이를 단순히 시술 성공률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삶 자체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혁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역에서도 가능한 세계 수준의 췌장·담도 치료

좋은강안병원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은 서울의 대형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짐이 없습니다. 현대 암 치료는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뤄지므로, 치료의 성패는 병원의 위치나 규모가 아닌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유기적인 통합 진료 시스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췌장담도센터는 이상수 센터장을 중심으로 췌·담도 수술의 권위자인 외과 양광호 과장과 윤성필 과장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상 및 조직검사, 병기 설정, 수술 가능성 평가, 항암치료 계획 수립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수 센터장은 췌장암이나 담도암이라는 무거운 진단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환자와 가족들에게 굳건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의학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부터 치료, 완치에 이르는 모든 여정 동안 환자분 곁을 가장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저희 의료진과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애오라지 환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이상수 센터장의 따뜻한 의술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난 선친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친의 “따뜻한 의사가 되라”는 간곡한 유언은 평생 그의 가슴에 새겨진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도 서울 원정 진료 없이 세계 수준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강안병원 췌장담도센터는 부울경 지역 췌장·담도 치료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AI 기술로 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강안병원

환자를 향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 병원의 표준이 되다



STORY 1

글로벌 인재들이
주목한
한국 의료의 미래



스탠포드 GSB 학생들 좋은강안병원에서 스마트 의료를 경험하다

지난 3월 27일(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경영대학원(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GSB) 학생 30여 명이 은성의료재단 좋은강안병원을 방문해 ‘한국 디지털 헬스케어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국 의료 현장의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스마트 의료 서비스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사례 공유와 글로벌 토론



프로그램은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이 직접 병원 소개와 AI 도입 현황, 주요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 토론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스탠포드 GSB 학생들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AI 진단 시스템과 ▲스마트 병동 구축 현황 등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다각적인 질문을 이어가며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료실부터 병동까지,
눈으로 확인한 스마트 시스템

시설 투어를 위해 진료실과 병동으로 나선 학생들은
첨단 시스템이 구현된 실제 의료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 **영상의학센터 AI 체험**: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을
돕는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 확인 및 AI를 통한
진단 정확도·효율성 제고

■ **스마트 병동 시스템 확인**: 환자의 생체 징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환경 점검 및 시공간
제약 없는 신속·안전한 대응 시스템

STORY 2

환자 중심의
스마트 시스템,
대외적 성과로 빛나다



좋은강안병원

‘2026 인공지능융합기술대상’ 기업인상 수상

좋은강안병원의 디지털 혁신 성과가 대외적 수상으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3월
6일, 해운대 웨스틴조선부산호텔에서 열린 ‘2026 인공지능융합기술대상’ 시상식에서

좋은강안병원 구매관리팀 서정규 부장이 영예의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서정규 부장은 디지털 의료장비와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병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라는 거대한 변화, 두려워 말고 즐겨라

부산인공지능융합기술협회를 겸임하고 있는 구자성 이사장은 축하에서 일론 머스크의 “비관적이고 옳기보다는 낙관적이고 틀리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최근 의료 분야의 AI 협업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공포를 느끼기보다 즐기며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해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좋은강안병원 전 구성원이 함께 이뤄낸 결실

서정규 부장은 “이 상은 스마트 병원을 향한 여정에 기꺼이 동참해 준 좋은강안병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효율적인 시스템과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현하고 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변화를 넘어 스마트 의료의 기준으로

이처럼 좋은강안병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은 단순히 첨단 기술 도입을 넘어, 환자가 더욱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실입니다. 의료진의 정밀한 진단을 보조하는 AI 시스템부터 환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지키는 스마트 병동까지, 좋은강안병원은 앞으로도 기술 발전을 발 빠르게 받아들이며 환자 중심의 미래형 스마트 의료 환경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시술센터

서부산 심혈관질환의
믿을만한 방패



풍부한 임상 경험과 체계적인 시술 시스템
의료진 중심의 전문 진료 체계
지역을 넘어 전국 수준의 심혈관 치료 거점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서부산 심혈관질환 치료의 중심

좋은삼선병원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407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1995년 개원 이후 올해로 창립 31년을 맞았습니다. 현재 내과계 입원 환자는 평균 100명 내외이며, 내과계 중환자실 12병상과 심혈관계 중환자실 4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 인근에는 여러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해 있지만, 사상구와 인근 사하구, 김해시 등 서부산 생활권에는 고령 인구나 만성질환자가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병이 조절되지 않아 심근경색증, 말초동맥질환, 진행성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환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심장내과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 속에서 서부산 심혈관질환 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과 심혈관 전담팀

좋은삼선병원 심장내과는 심재광 센터장을 비롯해 성주욱, 배장환, 임지훈 전문의 등 총 4명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혜은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PA 간호사, 심초음파 전담 직원, 조영실 영상기사와 간호사, 외래 간호조무사 등 총 28명의 전담 인력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촬영기, 정규 심초음파기 3대, IVUS, OCT, FFR 등 혈관 내 영상 및 생리 기능 평가 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정지 후 뇌손상 환자를 위한 저체온 치료 장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순환기내과
심재광 센터장



순환기내과
배장환 소장



순환기내과
성주욱 과장



순환기내과
임지훈 과장



2025년 주요실적

관상동맥 조영술

1,650건

관상동맥 중재술

474건

IVUS

178건

FFR

120건

심장초음파

8,006건

2025년 주요 진료 실적

좋은삼선병원 심장내과는 2025년 한 해 동안 관상동맥 조영술 1,650건, 관상동맥 중재술 474건, IVUS 178건, FFR 120건, 심장초음파 8,006건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 병변에 대한 응급 시술도 120여 건 시행하며, 중증 심혈관 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부산 지역 환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심혈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과의 연계 및 질 관리

좋은삼선병원은 흉부외과와 ECMO 운용이 없는 만큼, 중증 환자 진료에서 상급종합 병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심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며, 부산백병원 양태현 교수를 PI로 한 협력 체계 안에서 진료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학과와 함께 심근경색증 환자의 심전도 취득 시간, 응급실 도착부터 재관류까지의 시간, 퇴원 시 주요 약물 처방률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치료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넓어지는 심혈관 진료

최근 내원 환자와 심혈관계 중재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좋은삼선병원 심장내과는 진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관상동맥 조영촬영기 1대를 추가 도입하였으며, 기존 일일 조영실 병상 수용 규모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와 시술 지연을 줄이고,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심장재활과 임상연구로 이어지는 미래

2026년 3월부터는 재활의학과와 연계해 심근경색증 및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재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에르고노믹 바이시클, 트레드밀, 최대산소섭취량 측정 장치 등을 활용하고, BLS 과정을 수료한 물리치료사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약물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IRB 승인을 완료한 만큼, 향후 심혈관계 임상연구 분야로도 진료 역량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부산의 생명을 지키는 믿을 만한 방패

좋은삼선병원 심장내과는 서부산 지역 심혈관질환 환자와 지역민을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진료 역량 강화, 시술 인프라 확충, 심장재활치료 도입, 임상연구 기반 마련을 통해 서부산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이끄는 선도 센터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좋은병원들 에이전틱 AI로 스마트 병원 혁신 추진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병원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병원 행정과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병원들은 지난 6월 4일(목)~5일(금), 부산대학교 인공지능융합센터 (AI대학원)와 함께 병원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AI Agent Innovation Lab for Healthcare’를 진행했습니다. 교육은 좋은삼선병원과 좋은문화병원에서 각각 열렸으며, 구자성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 핵심 관계자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에이전틱 AI의 개념을 이해하고, 병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해보는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자들은 파티락(PartyRock), 클로드 코드(Claude Code) 등 노코드 AI 플랫폼을

활용해 진료 예약 관리, 환자 문의에 따른 진료과 매칭, 부서별 행정 업무 자동화 등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은성의료재단은 그동안 ‘AI 증강병원’을 목표로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부산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좋은병원들 AX헬스케어센터’ 설치, 구글워크스페이스(GWS) 도입 등은 이러한 변화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이진수 좋은삼선병원 인사총무팀 부장은 “AI가 전산 전문가만의 도구가 아니라 현장 직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AI가 환자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까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자성 은성의료재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부산대학교와 함께 의료기관 맞춤형 AI 활용 역량을 키워가는 중요한 산학공동 프로젝트”라며 “AI 기술을 통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본연의 의료 서비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병원들은 앞으로도 AI 기술을 병원 운영 전반에 단계적으로 접목해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줄이고, 환자 중심의 더 편리하고 세심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AI로 행정 부담은 줄이고,
의료 서비스는 더 높입니다**

좋은삼선병원 관절센터 환자와 함께 걸은 봄날의 회복길

인공관절 수술환자와 의료진이 함께한
‘봄 나들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지난 4월 11일(토), 좋은삼선병원 관절센터 의료진과 무릎인공관절 수술 환자들이 병원을 벗어나 **송정 바닷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진료실과 병동에서 만났던 의료진과 환자들은 이날 같은 길을 걷는 동행자가 되어 회복의 기쁨과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좋은삼선병원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정형외과 은일수 관절센터장을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 재활치료팀, 영상팀, 수술 환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봄 나들이는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을 격려하고, 의료진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며 재활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해운대 미포해변열차를 타고 송정역으로 이동한 뒤 송정해변과 죽도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들의 보행과 회복 상태를 자연스럽게 살피고, 환자들이 일상생활과 재활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궁금증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참가자 권○○ 환우는 “수술 전에는 무릎 통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수술과 재활을 거쳐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 환우도 “의료진과 함께 바닷길을 걸으니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생겼다”며 “치료와 재활 과정에서 세심하게 돌봐주신 의료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환우들은 서로의 회복 경험을 나누며 앞으로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일수 관절센터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자체뿐 아니라 이후의 꾸준한 재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환자분들의 달라진 걸음과 밝은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책 후에는 퀴즈대회 등 즐거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이 웃음과 박수 속에서 봄날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단순한 야외 행사를 넘어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자신감을, 의료진에게는 치료의 보람을 전한 뜻깊은 ‘회복 동행’의 시간이 됐습니다.

좋은삼선병원 관절센터는 앞으로도 수술을 넘어 회복까지, 진료실을 넘어 일상까지 환자와 함께 걸으며 따뜻한 의료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정회

은성의료재단 회장·사랑의 의사회 이사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 향기롭지요”



‘사랑의 의사회’는 지역 의료인들의 뜻을 모아 의료의 본질인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로,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정회 이사장은 봉사가 드러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실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용하지만 향기로운 나눔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사랑의 의사회’가 부산 의료계의 따뜻한 연대와 봉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첫걸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의사회’는 어떤 계기로 출범하게 됐습니까?

_____ 의료의 본질은 결국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와 여러 제도적 제약 속에서 의료 현장의 인간적인 유대감이 다소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부산지역 의료인들이 뜻을 모아 인도주의적 사랑을 다시 일깨우고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의사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범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_____ 부산은 장기려 박사님과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이 깃든 도시입니다. 두 분의 정신은 부산 의료인들에게 큰 자긍심이자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은 의료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적십자사와의 연계도 기대됩니다.

_____ 적십자사가 보편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펼친다면, 사랑의 의사회는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재능기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환자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을 지원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_____ 소아와 노인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환자들을 위한 나눔 의료도 확대하고, 의료 봉사상을 제정해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인과 봉사자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초대 이사장으로서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_____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가장 향기롭고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의사회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산 의료사에 따뜻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중선 청년 작가

예술로 건네는 따뜻한 힘, 병원 안 작은 갤러리



좋은병원들은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 청년 예술가 전시 지원사업’에 참여해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환자와 보호자, 시민들의 마음까지 돌보는 치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병원 안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을 통해 미술작품이 줄 수 있는 위로와 치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 첫 번째 전시로 청년작가 박중선의 초대전 ‘힘의 형태’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로비를 채운 그림 한 점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휴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호 ‘좋은사람들’에서는 예술과 치유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이번 좋은병원들의 ‘병원 안 작은 갤러리’ 전시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작품을 선보이게 된 소감이 궁금합니다.

_____ 전시 장소가 병원으로 결정된 후 제 작품이 잠시나마 병원 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쉼과 따뜻한 감정을 전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병원은 몸의 치료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필요한 공간입니다. 예술이 일상 가까이에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람객들이 제 작품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모습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쉼’은 어떤 모습인가요?

_____ 제가 생각하는 ‘쉼’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겐 속에 품은 각자의 이야기가 있으며, 그 속에는 본인이 상상하는 쉼의 순간과 쉼이 필요한 다양한 이유 등이 존재할 겁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을 바라보며 각자의 기억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바쁜 일상 속 작은 쉼 고르기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이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_____ 전시를 보신 한 관람객께서 “병원에 오면 늘 긴장했는데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고, 작품 속 저런 쉼의 순간을 상상해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 작품이 누군가에게 조용한 위로를 줄 수 있고, 작품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감정을 나누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앞으로 어떤 작가로 성장하고 싶으신지, 향후 계획이나 개인적인 목표가 궁금합니다.

_____ 예술이 가진 위로와 소통의 가능성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회화뿐 아니라 공간 연출과 다양한 매체 작업에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가며, 오래 지속 가능한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박순임

좋은강안병원 미화부

21년의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따뜻한 보은



2005년 개원 전부터 21년간 한결같이 신관을 지켜오신 미화부 박순임 여사님이 병원에서 진행 중인 아동복지시설 ‘동산원’ 아이들의 작품 전시와 연계하여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랜 세월 병원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고 싶다는 눈시울을 붉히신 박순임 여사님. 매일 새벽 4시, 가장 먼저 병원의 아침을 열어 따뜻한 보은을 실천하고 계신 여사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동산원 전시와 연계해 따뜻한 기부를 실천해 주셨는데,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_____ 좋은강안병원 덕분에 지금까지 일할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작년 개원 20주년 때 하려던 기부가 사정상 조금 미뤄졌는데, 마침 올해 병원에서 동산원 아이들의 작품 전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돕는 보람과 함께, 오랜 세월 병원에서 받은 큰 은혜에 보은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기쁘게 뜻을 보태게 되었습니다.

2005년 개원 전부터 21년간 좋은강안병원과 인연을 이어오신 소회가 어떠신가요?

_____ 2005년 2월에 입사해 본관 시절부터 지금까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출근해 병원 곳곳을 돌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일이 서투르고 힘들어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 식구들이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벽 출근이 고되지 않냐고들 묻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갈 수 있는 소중한 일터가 있고 반겨줄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병원으로 오는 발걸음은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번 나눔이 병원과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닿기를 바라시나요?

_____ 과거에 다리를 크게 다쳐 오래 쉴 때도 병원 식구들이 내 일처럼 챙겨주셨는데, 그 배려가 21년간 이곳을 지켜온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저에게 좋은강안병원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지켜준 가족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병원에서 받았던 이 커다란 사랑이 동산원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림. 김수진





* 좋은삼선병원 신경외과 최윤희 과장님께 보낸 ○○○님의 편지를 각색하였습니다.

세심한 진료가 전한 따뜻한 안심

To.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를 찾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며칠 전 어머니께서 발을 헛디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보호자인 저도 걱정이 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해당 진료과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가 어려웠던 곳도 있어, 어머니께서도 많이 지치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최재연 과장님과 의료진분들의 따뜻하고 세심한 진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최재연 과장님께서 어머니의 상태를 보호자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도 하나하나 차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처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까지 살피주시며 진료해 주신 점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의료진에게 어떤 점에서 감동을 받으셨나요?

바쁜 진료 중에도 환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최재연 과장님은 제가 만나본 의사 선생님 중에서도 가장 친절하게 느껴질 만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의료진분들 역시 어머니께서 놀라고 불안해하시는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주시고, 치료 과정 내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진료 후 어머니와 가족분들은 어떠셨나요?

의료진분들의 설명과 치료 덕분에 어머니도 많이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보호자인 저 역시 불안했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가족으로서 깊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도 좋은삼선병원 직원이신데, 같은 좋은병원들 안에서 이런 따뜻한 진료를 경험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좋은문화병원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님과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따뜻한 말과 세심한 진료로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위로와 안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지역 의료기관 최초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선정



좋은문화병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026년 **부산시 명문향토기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6월 1일(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산 대표 기업 33개 사를 2026년 명문향토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문향토기업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업력 20년 이상, 상시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200억 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업에는 명문향토기업 인증 현판과 인증서가 수여되며, 정책자금 지원, 지방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글로벌 홍보 지원, 부산도시가스 요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1978년 문화속 산부인과로 개원한 좋은문화병원은 올해 개원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과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부산 분만 의료의 중심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주요 분만 병원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에서도 좋은문화병원은 월평균 120~160건의 분만을 시행하며 지역 내 최다 분만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집중치료센터(NICU)는 좋은문화병원의 핵심 역량으로, 24시간 전문의 상주 체계와 숙련된 간호 인력을 바탕으로 지역 모자의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 아트페어 후원



좋은문화병원이 지난 5월 1일(금),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BIKAF) 시상식에 참여해 미래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특별상인 ‘좋은문화병원상’을 시상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국제 미술 공모전의 입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좋은문화병원은 국내외 만 4세부터 19세까지의 참가자 가운데 창의성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여준 학생 3명을 선정해 ‘좋은문화병원상’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3명의 어린이·청소년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BUSAN INTERNATIONAL KIDS YOUTH ART FAIR



좋은문화병원상 수상자인 류영서양과 어머니가 황종식 경영부원장과 함께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전시된 영화의전당 비프힐 현장에서 상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BIKAF는 참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공식 작가증’을 발급하고, 직접 도슨트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좋은문화병원 황종식 경영부원장은 “우리 아이들이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서적인 풍요로움까지 누리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후원과 시상을 진행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산을 걷다 3

기억과 공존 :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이 인 미

사진가, 비온후 공동대표





박물관은 대개 지나간 시간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공간이지만 어떤 박물관은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이기도 하다. 요즘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천년 고도 경주박물관의 인기가 뜨겁다. 이른 아침부터 관람을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유물을 모티브로 한 기념품 ‘뭇즈(MU:DS)’가 연일 품절 대란을 빚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수많은 국보와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무게감도 남다르다.

건축물이 지나온 시간 그대로가 우리나라의 압축된 근현대사이다. 1921년 조선총독부가 공공의료를 위한 병원으로 짓기 시작했으나 완공 후 무슨 이유에서인지 1년 가까이 비어 있었다. 그러던 1925년 진주에 있던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병원은 되어보지도 못하고 경남도청사가 되었다. 이후로도 격동의 사건이 있을 때마다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한국전쟁기에는 1,023일 동안 대한민국 피란 수도의 임시 중앙청으로 사용되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긴박한 결정들이 이 붉은 벽돌 건물 안에서 오갔을 것이다. 휴전 이후 정부가 서울로 환도하면서 다시 본래의 경남도청사로 돌아와 현대사를 이어갔다. 1983년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한 이후 20년 가까이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청 본관으로 바뀌어 엄숙한 사법의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아직도 그 일대를 법원 앞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시대의 요구에 따라 통치와 행정, 사법의 역사를 차례로 거쳐 온 건물이 이제는 박물관이 되었다. 2002년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건축물이 가진 기억을 남기며 미래 세대와 공존하는 방법으로 복원을 시작하였다.



그 첫걸음은 건축 재료가 가진 본래의 바탕을 되돌리는 것이었다. 대개 낡은 근대 건축물을 고칠 때 용도에 맞추어 깔끔하게 옛 벽면을 가리는 쉬운 방법을 쓰곤 한다. 하지만 석당박물관은 수십 년간 관공서로 쓰이며 공간을 나누고 있던 내부 벽들을 먼저 모두 걷어냈다. 그러자 회벽과 페인트로 덧칠해진 옛 벽면이 드러났다. 이를 벗겨내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 기계나 화학약품을 쓰면 백 년 된 벽돌 표면이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과 공사 비용을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 대신에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페인트를 긁어내고 닦아내는 고단한 길을 택했다. 덕분에 우리는 붉은 벽돌 벽면 일부가 박물관 유물들과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마주한다.

전시장으로 들어가면 빛과 어둠의 완벽한 대비를 이루는 극적인 조명 아래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곳곳에 남겨둔 당시의 붉은 벽돌 벽 덕분에 그 시대로 걸어 들어가는 듯하다. 가장 눈에겨봐야 할 유물은 조선 후기에 그려진 국보 ‘동궐도(東闕圖)’이다. 법궁인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것으로 이는 훼손된 궁궐의 전각들을 다시 지을 때 결정적인 고증 자료가 되었다. 3층으로 올라가면 복원의 정점과 마주하게 된다. 건립 당시 지붕을 받치던 거대한 목조 트러스 구조가 노출된 공간에는 복원 과정에서 수습된 건축 부재들이 전시되어 있다. 세월의 무게로 빛이 바랜 붉은 벽돌과 트러스 구조가 백 년이라는 시간을 보여준다.



시공간의 확장은 야의 전시로도 이어진다. 과거 경남도청 앞 도로를 지나다녔던 전차가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 도로를 바쁘게 오갔을 사람들의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지정된 시간에는 전차 내부가 개방되어 직접 전차를 타고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다. 석당박물관은 공간 그 자체로 역사의 흐름을 증명하는 거대한 유물이다.



- ✓ 웹사이트 www.museum.donga.ac.kr
- ✓ 위치 부산시 서구 구덕로 225(토성역 2번 출구 도보 5분)
- ✓ 개관일 화요일~일요일 * 월요일, 법정공휴일, 개교기념일(11월 1일) 휴관
- ✓ 관람시간 9:30~17:00(입장마감 16:30)
* 부산 전차 정기 개방 : 매주 화요일-금요일 14:00~15:00
(단체관람 시 석당박물관으로 문의)
- ✓ 관람료 무료
- ✓ 주변 볼거리 석당박물관 뒤편에는 피란 시절 대통령 관저로 쓰였던 '임시수도기념관'이 있고 가까이 보수동 책방골목과 국제시장, 부평동 축발골목, 야시장 등 한국 현대사의 삶의 현장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이인미

— 사진가, 비온후 공동대표

부산을 기반으로 도시의 풍경과 건축을 기록하는 사진가이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와 시간의 흔적을 담아내며 공간과 기억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다수의 개인전과 2012년, 2022년 부산비엔날레 등 국내외 기획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비온후' 공동대표로서 부산과 도시에 관한 책을 펴내고 있다. 맘미동에서 로컬과 커뮤니티를 잇는 작은 책방도 운영 중이다.

🏠 www.beonwho.com 📷 www.instagram.com/beonwhobookshop



사랑도 지리산 바다 위 걷는 황홀한 호사

이 흥 곤

은성의료재단 기획홍보 본부장

가마봉 하산길에서 본 사랑도를 대표하는 전경이 평화롭다.

정면으로 출렁다리가 연결된 연지봉과 그 오른쪽으로 윗섬과 아랫섬을 연결하는 사랑대교가 보인다.



영동 천태산.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애뜻한 숨결이 서린 영국사와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가 우선 떠오르겠지만 75m 높이의 대암벽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을 만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변화무쌍한 암릉이 마치 닭 벼슬을 한 용을 닮아 명명된 공주 계룡산. 설악의 공룡능선을 방불케하는 1.6km의 자연성능은 가장 환상적인 코스로 알려져 있다.

경북 상주와 충북 영동을 가로지르는 백화산 한성봉. 부산에서 덜 알려진 이곳은 물고기 등지느러미같이 길게 뻗은 암릉길이 좌우 모두 낭떠러지여서 기어가야 할 정도로 오금을 저리게 한다.

‘땅끝’ 해남 두륜산. 아름다운 대흥사를 품어 ‘명산에 명찰’이란 말이 안성맞춤인데다 암릉길에 펼쳐지는 다도해 국립공원의 황홀한 풍광은 한 장면도 놓치기 아까운 한 폭의 그림이다.

돈금없이 전국의 명산을 떠올린 까닭은 통영 사랑도 지리산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이곳은 앞서 소개한 명산들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 암릉이면 암릉, 조망이면 조망. 여기에 출렁다리까지 생겼다. 한마디로 내로라하는 명산에서 누릴 수 있는 호사를 이곳에서 죄다 경험해볼 수 있다. 산림청이 정한 ‘한국의 100대 명산’에 뽑힌 건 당연지사.

원래 이름은 지리망산(智異望山). 맑은 날 정상에 서면 북쪽으로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보인다고(望) 생긴 이름이다. 지금은 ‘지리산’으로 굳어졌고, ‘국립공원 1호’ 지리산과 구분하기 위해 ‘사랑도 지리산’으로 부른다. 섬 산행지 중 한라산을 제외하면 등산객이 가장 많은 곳이다.

사랑도의 원래 이름은 박도(撲島)였다. 파도가 거칠게 섬을 세게 때려 ‘칠 박(撲)’ 자를 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윗섬과 아랫섬을 상박도, 아랫섬으로 기록하고 있다.

재밌는 점은 지금의 섬 이름 ‘사랑’이 군사 기지 이전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원래 남해안의 수군 기지는 구량량(지금의 사천 실안동)에 있었다. 조선 초기 왜구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수군과 병선들을 최전방 요충지인 두 섬 사이의 좁은 해협으로 옮겼다. 군사들은 윗섬과 아랫섬 사이의 바닷길이 마치 뱀처럼 굽이쳐 흐른다 하여 ‘뱀 사(蛇)’ 자에 두 기둥(섬) 사이를 잇는 나무를 의미하는 ‘들보 량(梁)’ 자를 붙여 부대 이름을 ‘사랑진’으로 부르다 이후 섬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전해온다.

산행은 수우도전망대~지리산~달바위봉~가마봉~잇단출렁다리~옥녀봉~금평 선착장순. 산행거리는 약 6.5km, 4시간30분 정도 걸린다. 풀코스가 부담스러우면 선착장~옥녀봉~가마봉~달바위봉~성지암~옥동 순의 2시간 30분, 선착장~ 옥녀봉~가마봉~대항 순의 2시간 코스를 타도 된다.

원래 사랑도 지리산 산행은 서쪽 돈지마을에서 출발했지만 섬 일주도로가 완공되면서 들머리가 수우도전망대로 바뀌었다.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초반 체력 소모를 덜어주기 때문이다. 수우전망대에 서면 사랑도의 막내이자 동백섬인 수우도와 남해도의 탁 트인 풍광이 일품이다.

정자 쉼터에서 길 건너편 철망 울타리 쪽 지리산 이정표를 보고 산행을 시작한다. 쉬엄쉬엄 10여 분 산길을 오르면 옛 들머리 돈지마을에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면서 조망이 열린다. 저 멀리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근육질 암봉 중 최고봉이 지리산이다.

성벽을 연상시키는 바위 벼랑의 안전 목적을 따라 걷는다. 한 굽이 오르면 또 다른 암봉이

기다린다. 좌우 모두 벼랑인 물고기 등지느러미를 빼닮은 칼날 능선은 백화산 한성봉 정상 직전의 암릉을 연상시킨다. 다행히 지금은 예전과 달리 손잡이와 발디딜 곳이 많은 데다 벼랑길에 목책과 난간, 덱계단 등이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 발아래 하얀 포말을 일으키는 어선을 발견할 땐 황홀하기까지 하다.

지리산(397.8m) 정상은 첫 이정표에서 50분. 날씨가 약간 흐려 내륙의 진짜 지리산은 볼 수 없지만 북서쪽 사천 와룡산에서 시계 방향으로 향로봉 상족암군립공원 좌이산 수태산 무이산 아랫섬 수우도 남해도 산수도 삼천포대교 각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최고의 전망대다.

달바위(2.1km) 가마봉(2.9km)으로 향한다. 송림길과 우회로를 번갈아 만난다. 때론 편안한 암릉과 농작만한 바위 옆 좁다란 틈새를 지나기도 하지만 주등로는 거친 암릉길이다. 이 즈음 윗섬과 아랫섬 사이 바닷길이 시야에 들어온다. 좁다란 해협인 이곳의 이름은 뜻밖에도 동강(桐江). 엄연한 바다임에도 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외해의 거친 파도와 달리 오동나무 푸른 잎사귀처럼 짙은 물이 호수처럼 잔잔하고 유유히 흘러 마치 육지의 강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달바위봉 직전, 갈림길이 기다린다. 오른쪽 우회로를 이용하면 황홀한 조망을 놓치기 때문에 정면 덱 계단을 올라 칼날 암릉에 설치된 난간을 붙잡고 오른다. 암봉 아래 달처럼 큰 바위굴이 있어 달바위봉이라 불리는 이곳은 과거 풀 한 포기 나지 않는 민둥산이라 불모산(不毛山)이라고도 불린다. 지리산에서 1시간. 달바위봉은 지리산보다 2m 높은 최고봉이지만 주봉은 지리산임을 밝혀둔다.

가마봉~옥녀봉 구간, 스릴 만점

지금까진 사실 가벼운 몸풀기. 이번 산행의 하이라이트는 이후 만나는 가마봉~연지봉~옥녀봉 구간. 과거에는 시종일관 깎아지른 듯한 직벽에 걸린 너털너털한 밧줄이나 부실한 줄사다리에 매달려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려야 했지만 지금은 철계단이 놓여 덜 부담스럽다. 그래도 철계단은 거의 수직에 가까워 특히 여성들은 힘들어한다. 대신 스릴 넘치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철계단.

구간이라 옆에 아홉은 연신 카메라 셔트를 누르고 하고 한동안 풍광에 매료돼 상념에 잠기기도 한다.

가마봉으로 향한다. 정면으로 명물이 된 출렁다리가 걸린 연지봉과 그 오른쪽으로 윗섬과 아랫섬을 잇는 사랑대교가 펼쳐진다. 아랫섬 최고봉인 칠현산(349m)도 손에 잡힐 듯하다.



암봉과 암봉을 잇는 지리산의 명물 출렁다리와 사천 고성의 섬들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암반을 타고 급하게 떨어져 덱 계단을 내려가면 대항 갈림길이다. 사랑도에서 유일한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이다. 직진한다. 하늘에서 사다리를 세워놓은 듯 가파른 계단을 올라 35분이면 가마봉에 선다. 이제부터 낙타 등 같은 암봉이 이어져 이번 산행 중 가장 스릴 넘치는 구간이다. 경사진 바윗길을 내려가면 갈림길을 만난다. 왼쪽은 그야말로 유격장을 떠올릴 만큼 거의 직벽에 가까운 철계단을 내려가야 한다. 이게 무서우면 오른쪽 우회로로 돌아 내려간다. 정면의 향봉·연지봉을 연결하는 두 개의 출렁다리를 만난다. 이 출렁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봉우리를 크게 우회하거나 밧줄과 너덜너덜한 줄사다리를 타야 하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다. 2013년 2월 개통된 출렁다리는 각각 39m, 22m로, 발아래로 펼쳐지는 아찔한 낭떠러지와 푸른 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전국적인 스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작은 돌탑이 있는 연지봉을 지나 30분이면 옥녀봉에 선다. 옥정에 눈이 먼 아버지를 피해 도망쳐 절벽에 몸을 던졌다는 슬픈 사연이 전해온다. 사랑도선착장이 위치한 금평항과 동강 그리고 사랑대교로 이어진 아랫섬 칠현산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벼랑끝이 옥녀가 몸을

던졌다는 지점이다. 281m가 적힌 정상석과 ‘100대 명산’이라 적힌 표지석 및 돌탑이 나란히 서 있다. 정면 높은 봉우리는 고동산이다.

하산은 역시 뱃줄에 이어 철계단에 의지해 내려선다. 앞서 내려온 구간에 비하면 ‘누워서 떡먹기’다. 꼬불꼬불한 숲길을 25분쯤 가면 도로를 만난다. 사랑섬유스호스텔, 사랑초등, 사랑면사무소를 지나면 선착장에 도착한다.

떠나기 전에

부산에서 사랑도를 가려면 통영 도산면 ‘가오치여객선터미널’에서 배를 타야 한다. 카페리여서 차를 싣고 갈 수도 있다. 사랑도 배편은 평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출발한다. 35~40분 소요. 막배는 오후 5시. 사랑도에서 가오치행 배는 2시간 간격이며 막배는 오후 6시. 여객 운임 성인 기준 평일 7,800원, 주말 8,500원. 차량 선적 시 소형·중형차 2만 원. 신분증 필수. 터미널 주차는 무료.



옥녀봉 정상.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 의료의 본질과 미래를 말하다



인공지능(AI)은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진료와 병원 운영, 건강관리까지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AI는 과연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을까요?

대한병원협회가 개최한 KHC(Korea Healthcare Congress) 2026에서는 ‘AI와 의료산업’을 주제로 한 세션이 진행됐으며,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 구자성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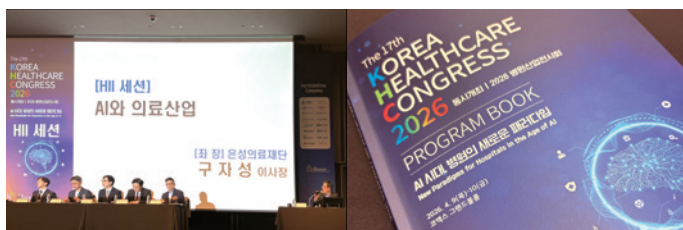
이날 구 이사장은 패널들에게 “현재 국내 의료 현장의 AI 활용 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의료·산업 분야 전문가들은 11점에서 40점 사이의 점수를 제시하며 아직 의료 AI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임상 의사결정 지원과 병원 경영 효율화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 활용의 한계와 수가 체계, 책임 소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술 발전 속도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향후 3~5년 안에 의료 AI 수준이 80점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 역시 2026년을 의료 AI 활용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 AI 시대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구자성 이사장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현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화두가 됐습니다.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혁신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진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 성료

부산 기장체육관서 양일간 열전...
지역 '체육·문화 축제'로 안착
생활체육인들의 화합의 장이자
시민 건강증진 도모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이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탁구협회가 주관한 ‘제2회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가 지난 6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습니다.



지난해 첫 대회의 성공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생활체육인들의 뜨거운 소통의 장이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화합의 축제’로 확실히 안착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경기장에는 부산 전역에서 모인 탁구
동호인들과 가족 등 수많은 인파가 몰려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대회는 남·여 그룹별(A·B·C그룹) 개인단식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치열한
แร리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매 세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고, 관람석에서는
아낌없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와 현장의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습니다.
재단은 이틀간 땀 흘린 동호인들을 위해 풍성한 시상도 진행했습니다.
개인단식 우승자에게는 최고급 탁구 러버 3장, 단체전 우승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되는 등 다양한 부상과 기념품이 고루 돌아갔습니다.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은 “탁구대 앞에서 하나 되어

건강한 땀방울을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생활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넘어, 지역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체육·

문화적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전하였습니다.



좋은병원들 자랑대회 ‘자랑은 못말려’



좋은병원들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 ‘자랑은 못말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못말려’는 좋은병원들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감동과 자부심을 만들어가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단순한 사연 공모를 넘어 좋은병원들의 진정한 강점을 함께 발견하고, 우수 사례는 시상과 함께 웹툰으로 제작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동을 전한 사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과, 봉사과 헌신의 이야기 등 좋은병원들을 빛내는 다양한 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문화병원 인사총무팀 직원의 **헌혈 120회 달성 이야기**, 좋은삼선병원 직원들의 **차량 화재 초기 진화 참여 사례**, 그리고 실습생들이 직접 꾸민 **인공신장센터 환경 개선 활동** 등 훈훈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접수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는 네이버 및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선정된 사연은 매주 목요일 좋은병원들 SNS와 병원 메신저를 통해 소개됩니다.

좋은병원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료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좋은병원들의 가치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삼선병원 부산 지역외상거점병원 선정

지역의 응급의료 역량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좋은삼선병원이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지역외상의료체계 구축 시범 사업’의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은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의료체계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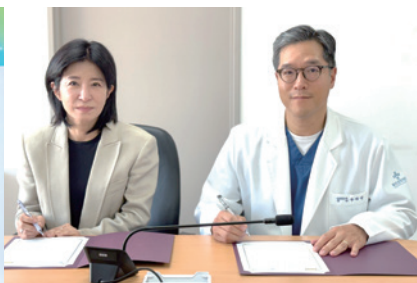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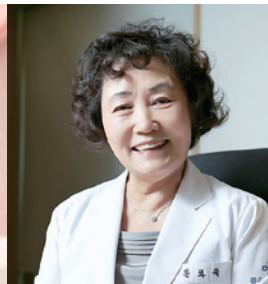


지역외상거점병원(Regional Trauma Center)은 외상환자 발생 시 초기 평가와 응급처치, 안정화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이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권역외상 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외상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외상 거점병원을 연결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 체계로 운영됩니다. 권역외상센터가 고난도 수술과 집중치료를 담당하고, 지역외상거점병원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맡아 보다 효율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부산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외상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연계 시스템도 강화됩니다.

좋은삼선병원은 앞으로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서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외상센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부산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문화병원



임신성 당뇨 강좌 및 연속혈당측정기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최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4월 28일(화) 오후 2시, 15층 대강당에서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내분비내과 권은진 과장이 진행했으며, 임신 중 혈당 관리의 중요성과 임신성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강좌와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무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한 산모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산모들은 혈당 관리 방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며, 건강한 임신 기간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환우들에게 따뜻한 웃음과 선물 전달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5월 4일(월), 어린이날을 맞아 병원을 찾은 어린이들과 입원 중인 어린이 환우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아청소년과 외래 앞에서 진행됐으며, 친절·정결·절약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구디백 선물, 포토부스, 빨간펜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아이들은 포토부스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이벤트에 참여하며 병원에서의 특별한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 병원 곳곳에 밝고 따뜻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문화속 병원장, 美 AAGL 4년 연속 심사위원 위촉

좋은문화병원 문화속 병원장이 산부인과 내시경 분야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부인과내시경학회(AAGL)의 심사위원으로 4년 연속 위촉됐다. 문화속 병원장은 오는 11월 13일(금)부터 16일(월)까지 미국 보스턴 하인즈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5차 AAGL 학술대회에서 논문 초록 및 영상 연제 선정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학술지인 AJOG 등 SCI(E) 및 SCOPUS급 국제학술지에 총 28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임상 경험에 기반한 연구 성과로 국제적인 연구 역량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공식 후원 협약

좋은문화병원은 지난 5월 18일(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와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문화 활동을 응원한다. 좋은문화병원은 매년 BIKY 후원사로 함께하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화와 문화를 통해 상상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영화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행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을 지원하며 안전한 축제 운영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좋은삼선병원



척추센터 김종열 센터장 건강 아카데미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5월 11일(월), 커넥트현대 9층 컬처넥트 7강의실에서 시민 대상 건강강좌 ‘건강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에는 척추센터 김종열 센터장이 연자로 나서 ‘절개는 최소로, 회복은 빠르게... 최신 척추 내시경 수술의 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허리디스크와 척추관협착증 등 대표적인 척추질환의 증상과 치료법을 비롯해 최소 절개로 진행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과 최신 치료 트렌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사상구체육회와 지역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5월 14일(목), 부산 사상구체육회와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의료 지원 협력 ▲체육회 회원 및 가족 대상 건강관리 연계 ▲지역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캠페인 공동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상구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외상환자 진료협력 업무협약 체결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5월 27일(수), 부산 롯데호텔 42층 버클리룸에서 외상환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 연계와 지역 응급·외상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상환자 진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응급·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진료 협조, 지역 내 응급·외상 진료협력체계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성우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혈관시술센터 확장 개소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6월 9일(화), 혈관시술센터 확장 개소식을 열고 총 3개의 혈관조영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한 필립스사의 최신 혈관조영촬영기 ‘Azurion 7 M12’는 심·뇌혈관 구조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고해상도 영상으로 미세한 혈관 이상을 신속·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총 3대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심혈관·뇌혈관 시술을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심근경색·협심증·뇌졸중 등 응급환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와 시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좋은강안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수, 체장담도센터장 영입

좋은강안병원이 지난 4월 30일(목), 체장·담도 질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이상수 교수를 체장담도센터장으로 영입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세계 최초로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급성담낭염 배액술&을 성공시키며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 길을 연 인물이다. 압도적인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정밀 내시경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병원은 이번 명의 영입을 통해 소화기 중심의 중증 치료 역량을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복지시설 ‘동산원’ 성금전달

좋은강안병원이 개원 21주년을 맞아 지난 5월 4일(월), 아동복지시설 ‘동산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4월 신관 로비에서 열린 동산원 아이들의 그림 전시회 ‘커다란 꿈을 응원하는 작은 갤러리’를 통해 조성되었다. 아이들이 그린 병원 풍경과 의료진의 모습은 내원객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자발적인 기부로 이어졌다. 이윤선 친철위원장은 우리의 정성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공략 ‘날개’

좋은강안병원이 지난 5월 14일(목)과 15일(금), 부산경제진흥원 주관 ‘부산 의료관광 공동 상품개발을 위한 팸투어’로 몽골 여행 및 발권업계 관계자단을 맞이했다. 방문단은 본원의 선진 의료 인프라와 맞춤형 건강검진, 외래 진료 프로세스를 견학했다. 이번 코스는 한국관광공사, 제주항공 등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신규 결합 상품인 ‘K-Heal Air’로 출시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 병원은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통해 해외 환자 유치와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외과센터 고상화 과장, ‘건강 아카데미’ 성료

좋은강안병원이 지난 6월 8일(월), 커넥트현대 문화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외과센터 고상화 과장이 대장암의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강연을 맡아 위험인자와 올바른 식습관 등 유익한 예방법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특히 주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의 중요성과 가족력에 따른 맞춤형 관리 조언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강연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건강 고민을 해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좋은삼정병원



제15회 울산건강박람회 참여

좋은삼정병원은 지난 4월 11일(토), 태화강국가정원 왕버들마당에서 열린 제54회 보건의 날 기념 ‘제15회 울산건강박람회’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상담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혈당 검사와 혈압 체크, 경도 인지장애 자가 테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정형외과 및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참여하는 1:1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좋은삼정병원 교육팀 강영미 책임간호사가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정화 플로깅 활동

좋은삼정병원은 지난 5월 2일(토), ESG 경영 실천의 하나로 원내 취약지구와 병원 인근 일대에서 **환경정화 플로깅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깨끗하고 쾌적한 병원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병원 청결·절약위원회가 참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병원 내 취약 구역과 주변 도로를 돌며 생활 쓰레기와 담배꽂초 등을 수거하고 환경을 정비했다. 앞으로도 친환경 병원 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어버이날 맞이 환우 위로 로비 음악회 개최

좋은삼정병원은 지난 5월 8일(금), 어버이날을 기념해 환우와 보호자를 위한 **로비 팬플룻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병원 생활로 지친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과 따뜻한 정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곡들이 팬플룻의 부드러운 선율로 연주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환우와 보호자들은 노래를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따뜻한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간호사 백일잔치

좋은삼정병원은 지난 6월 10일(수), 병원 희망관 4층 강당에서 2026년 공채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빛나는 시작, 100일간의 아름다운 동행**’ 백일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임상 현장에서 100일 동안 성실히 적응해 온 총 12명의 신규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간호사들의 지난 100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했다.

좋은병원들



좋은요양병원 4곳, ‘쌔쌔이가 바른 병원’ 동참

좋은애인·부산·리버뷰·요양병원에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확산 캠페인인 ‘쌔쌔이가 바른 병원’에 동참했다. ‘쌔쌔이가 바른 병원’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의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좋은요양병원들은 “작은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좋은리버뷰요양병원, 개원 13주년 기념식 개최

좋은리버뷰요양병원은 지난 5월 8일(금), 구자성 이사장과 조현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현 병원장은 “어려울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며 “환자와 동료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구자성 이사장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존엄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 마주하고, 정성을 다하는 의료와 돌봄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좋은사랑요양병원, 개원 1주년 기념식 개최

좋은사랑요양병원은 지난 6월 1일(월), **개원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개원 이후 지난 1년간의 경영·의료 성과를 공유하고, 병원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황윤이 병원장은 “지난 1년간 병원의 성장을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문적인 재활치료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환자 중심 존엄 케어’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좋은선린병원·좋은선린요양병원, 개원 9주년 기념식 개최

좋은선린병원과 좋은선린요양병원은 지난 6월 2일(화), **개원 9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은 병원 소개 및 상반기 주요 활동 영상 상영, 모범직원 표창, 개원 기념사와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좋은선린요양병원 오세진 병원장은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따뜻한 돌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D NEWS

GOOD HOSPITALS

2026.06.22

부산일보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 열기 후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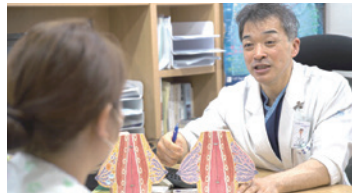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표 의료 네트워크 은성의료재단 좋은병원들이 주최하는 제2회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6월 20~21일 이틀간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개최된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는 부산의 민간기업이 주최하는 첫 생활체육 탁구대회다. 부산시탁구협회가 주관하고 탁구용품사타그로와 뉴스통신사뉴시스가 후원한다.

GOOD MOONHWA HOSPITAL

2026.04.07

국제신문

유방암센터 유동원 소장 ‘치밀유방’ 암 진단 어려움, AI 영상분석으로 크게 개선



국내 여성 유방암은 현재 암 발병률에서 1위를 차지한다.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별 의료 이용 통계 연보’에 의하면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은 6대 주요 암 환자 중 유방암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523명으로 가장 많다.

GOOD SAMSUN HOSPITAL

2026.06.01

국제신문

정형외과 김창완 연구부장 지문처럼 다른 무릎관절... 망가지면 개인 맞춤 인공관절 수술을



의료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지향점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환자의 일상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기술의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 환자의 무너진 삶의 질을 얼마나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느냐에 있다.

GOOD GANG-AN HOSPITAL

2026.04.14

부산일보

갑상선두경부센터 이병주 센터장 갑상선암 수술 부작용 줄이려면? 수술 중 후두신경 체크하면 원소리 걱정 없어



좋은강안병원 갑상선두경부센터가 수술 후 목소리 변화와 성대 마비를 최소화하는 환자 중심 진료를 시행한다. 이병주 센터장이 직접 개발해 특허를 받은 ‘탈부착 가능 신경 탐침’으로 수술 중 후두신경을 실시간 확인한다.

신문

좋은병원들

- 4월 7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 맞아 건강 캠페인 I 부산일보, 경남일보, 의계신문
- 4월 22일 부산문화재단과 손잡고 '병원 안 작은 갤러리' I 부산일보, 로이슈, 의학신문, 아시아경제, 뉴스경남, 의계신문
- 4월 26일 구정회 회장, 부산 의사들 봉사단체 '사랑의 의사회' 출범 I 데일리메디, 메디게이트, 부산일보
- 4월 27일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 MOU I 부산일보, 국제신문, 의계신문
- 4월 28일 계산 한 칸에 담긴 나눔과 환경... 은성의료재단, ESG 경기로 고유 문화 계승 I 국제신문, 베이비뉴스, 보건뉴스, 아시아경제, 의계신문
- 5월 4일 어린이날 병원에 웃음꽃 피웠다 I 아시아경제
- 5월 10일 어버이날 맞아 환자 가슴에 '감사와 패유' 카네이션 전해 I 보건뉴스, 아시아경제
- 5월 11일 광안대교 국제걷기축제 건강 부스 운영 I 보건뉴스
- 5월 13일 '국제 간호사의 날' 좋은병원들 간호사 격려 행사 I 부산일보, 아시아경제
- 5월 15일 '세계 고혈압의 날' 건강캠페인 진행 I 보건뉴스
- 5월 20일 좋은병원들배 탁구대회, 6월 20일 개막...남녀 단체·개인 I 뉴시스
- 6월 2일 구정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상임고문 위촉 I 코메디닷컴, 보건뉴스, 아시아경제
- 6월 15일 폭염 근무자 온열질환 예방 활동 I 국제신문, 부산일보
- 6월 19일 日 가마치그룹 와지로병원 초청 교류회 성료 I 보건뉴스, 의학신문
- 6월 22일 '제2회 탁구대회' 성황리 성료 I 뉴시스, 보건뉴스, 부산일보, 의계신문

좋은문화병원

- 4월 1일 아이들의 예술 꿈 키운다...비바크와 동행 I 아시아경제, 뉴시스, 메드월드뉴스, 헬스포커스뉴스, 부산일보
- 5월 4일 제6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아트페어 후원 미술 영재 3명에게 상장 수여 I 간호사신문, 한국약학통신, 메드월드뉴스, 국제신문, 부산일보
- 5월 12일 김주형 센터장, 림프부종 바이오브릿지 수술 세계 최초 200례 I 코메디닷컴, 아시아경제, 보건뉴스, 메드월드뉴스, 부산일보, 국제신문, 의학신문
- 5월 18일 BIKY 공식 후원, 지역 어린이 문화 활동 지원 I 간호사신문, 헬스포커스뉴스, 메드월드뉴스

- 5월 23일 문화속 병원장, 세계 최고 권위 AAGL 심사위원 4년 연속 위촉 I 메드월드뉴스, 아시아경제, 부산일보, 국제신문, 코메디닷컴, 의학신문, 보건신문

- 6월 1일 지역 의료기관 최초 부산시 명문향토기업 선정 I 국제신문, 보건신문, 병원신문, 의학신문, 아시아경제, 코메디닷컴

좋은삼심병원

- 4월 1일 부산 첫 지역와상거점병원 선정 I 국민일보, 국제신문, 더퍼블릭, 데일리스포츠한국, 부산일보, 서울경제, 세계일보, 의계신문, 의학신문, 전국매일신문, CNB뉴스,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 4월 11일 수술 환자와 함께한 '무릎 건강' 힐링 나들이 I 국제신문, 부산일보, 의계신문, 코메디닷컴
- 4월 16일 'VIP 건강 아카데미' 성료... 뇌건강 맞춤 정보 제공 I 의계신문
- 4월 24일 대한정형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I 국제신문, 부산일보, 의계신문
- 5월 15일 사상구체육회와 지역 건강증진 업무협약 체결 I 보건뉴스, 부산일보
- 5월 20일 개원 31주년 기념식 개최 I 보건뉴스, 부산일보, 의계신문
- 6월 2일 외상 골든타임 지킨다... 좋은삼심병원&부산백병원, 외상환자 신속치료 협력체계 구축 I 아시아경제, 의계신문

좋은간암병원

- 4월 9일 박지애 과장, 13년간 소아 심장초음파 9,000례 I 부산일보, 국제신문, 아시아경제,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4월 15일 개원 21주년 기념식 가져 I 부산일보, 아시아경제, 로이슈, 시민일보, 메디팜헬스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4월 16일 유학생 건강지킴이 낙점, 부산시 거점병원 지정 I 아시아경제, 코메디닷컴, 의학신문, 로이슈, 시민일보, 보건뉴스, 의계신문, 한국의학신문
- 4월 30일 '체담도 권위자' 이상수 전 서울아산병원 교수 영입 I 부산일보, 국제신문, 후생신보, 보건뉴스, 아시아경제, 의계신문
- 5월 5일 [포토뉴스]동산원에 성금 전달 I 부산일보, 아시아경제, 로이슈
- 5월 15일 '몽골 하늘길 열고 'K-의료' 심는다' 부산, 웰니스 관광 승부수 I 뉴스타운, 다센뉴스, CNB뉴스, 노컷뉴스, 연합뉴스
- 5월 18일 갑상선 수술 안정성 높이는 첨단장비 도입 I 보건뉴스

건강칼럼

좋은문화병원

- 4월 7일 유방외과 유동원 소장 - '치밀유방' 암 진단 어려움, SI 영상분석으로 크게 개선 **| 국제신문**
- 4월 8일 내분비내과 권은진 과장 - 임신부 10명중 1명은 당뇨...거대아 방지하려면 혈당부터 잡아라 **| 메드월드뉴스, 스포츠조선, 한국의약품신문, 보건뉴스, 아시아경제**
- 4월 20일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 - '아이 얼굴 열상, 초기 대응이 흠터 좌우...미세보합 골든타임 사수해야' **| 보건뉴스**
- 4월 20일 난임센터 민성훈 실장 - 난임 '책임연구원' 자격 취득 **| 아시아경제, 국제신문, 부산일보, 메드월드뉴스**
- 4월 27일 내분비내과 권은진 과장 - 임신부 10명 중 1명 임신당뇨...인슐린 치료 안 하면 배 둘레 키워 **| 국제신문**
- 4월 29일 외과 조용훈 부장 - 탈장, "자연 치유 없다"...사타구니 뚫을 시 조기수술 원칙 **| 보건뉴스**
- 5월 20일 신경외과 손상규 소장 - 척추 수술, 회복의 핵심은 신경 손상 정도 **| 보건뉴스**

좋은삼성병원

- 4월 10일 외과 김진민 과장 - 담석증, 식후 반복되는 명치 통증 있다면...봄철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의심 신호 **| 보건뉴스**
- 4월 22일 순환기내과 배창환 소장 - 봄철 어지럼·두근거림, 가볍게 넘기면 위험...고령층 뇌졸중 원인 '심장' 일 수 있습니다 **| 보건뉴스**
- 4월 22일 비뇨의학과 채종석 과장 - 물 한 잔으로 지키는 건강, 봄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요로결석 **| 의계신문**
- 4월 28일 정형외과 은일수 센터장 - 봄에서 여름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기술 **| 의계신문**
- 5월 6일 정형외과 은일수 센터장 -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무릎 건강 되찾는다" **| 보건뉴스**
- 5월 13일 신경외과 김종철 센터장 - "절개는 최소·회복은 빠르게"...최소침습 척추수술, 척추치료 새 기준 부상 **| 보건뉴스**
- 5월 18일 순환기내과 임지훈 과장 - 병원에서 잤 '진짜' 아닐 수도...평소 자가측정 습관을 **| 국제신문**
- 6월 2일 정형외과 김창만 부장 - 지문처럼 다른 무릎관절...망가지면 개인 맞춤 인공관절 수술을 **| 국제신문**
- 6월 19일 순환기내과 임지훈 과장 - 아프지 않은데 병이 진행된다? 혈압이 보내는 신호 **| 의계신문**

좋은강안병원

- 4월 6일 신경외과 허채욱 과장 - 뇌졸중 전조 놓치면 치명적 **| 보건뉴스**
- 4월 7일 신경과 김선정 과장 - 무심코 넘긴 변비, 심한 잠버릇, 질병 시작 신호 **| 부산일보**
- 4월 14일 외과 양광호 과장 - 조용히 찾아오는 '침묵의 살인자'...췌장암, 작은 신호 놓치지 말아야 **| 아시아경제, 로이슈, 보건뉴스, 후생신보, 코리아헬스로그, 의계신문, 한국의약품신문**
- 4월 27일 신경외과 전상호 소장 - '척추전방전위증'...조기 진단과 재활이 예측 좌우 **| 보건뉴스**
- 5월 6일 가정의학과 이가영 과장 - '나의 젊음이 가족의 방패'...'코쿠닝 효과'란? **| 보건뉴스**
- 5월 13일 건강증진센터 김정은 센터장 - [세상읽기] 부산 응급의료체계, '배후진료'에서 답을 찾다 **| 국제신문**
- 5월 4일 이비인후과 홍충철 과장 - 감상선 수술 안정성 높이는 첨단장비 도입 **| 국제신문**
- 6월 4일 신경과 김선정 과장 - 조용히 시작되는 파킨슨병 **| 보건뉴스**
- 6월 19일 정형외과 최장규 과장 - 병뚜껑 따기 힘들 만큼 아픈 만성 '팔꿈치' 통증...'힘줄 변성' 의심 **| 계신문, 뉴스경남, 코리아헬스로그**
- 6월 22일 이비인후과 홍충철 과장 - [닥터큐 전문의를 만나다] 부갑상선·성대신경 보존, 갑상선암 제거만큼 중요 **| 부산일보**

유튜브

좋은병원들



5월 20일(수) / 동아일보
3차 보다 강한 2차 병원
은성의료재단 구자성 이사장

좋은문화병원



5월 28일(목) / 의학채널 비온뒤
림프부종
성형외과 김주형 과장



6월 19일(금) /
테라기자가 만난 베스트닥터
산부인과 명의로 말하는 '자궁 살라' 기준
문화숙 병원장

라디오

좋은문화병원



5월 11일(월) / 부산교통방송 건강클리닉

소아열상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

좋은삼선병원



4월 15일(수) / 부산의오늘
허리는 고치는게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것입니다.
척추센터 최윤희 과장



4월 27일(월) / 부산교통방송
통풍과 만성콩팥병
신장내과 길송이 과장

좋은강안병원



4월 13일(월) / 부산교통방송
성인예방접종
가정의학과 이가영 과장

TV

좋은문화병원



5월 25일(월) / 건강365

이루공
성형외과 최재연 과장



6월 8일(월) / 건강365

치질
외과 김치영 과장

좋은삼선병원



4월 1일(수) / 뉴스7(부산)

좋은삼선병원,
부산 외상환자 거점병원
선정 24시간 대응



5월 12일(화) / 건강365

비파열성 뇌동맥류
신경외과 김영하 과장



5월 28일(목) / 건강튜브

심장질환
순환기내과 배장환 소장



6월 2일(화) / 건강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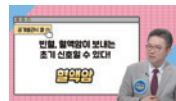
석회화관염
정형외과 오용승 과장

좋은강안병원



4월 23일(목) / 건강튜브

담석, 담낭용종
외과 양광호 과장



4월 25일(토) / 공개클리닉

혈액암
종양혈액내과 주영돈 부원장



6월 10일(수) / 건강365

감상선암과 로봇수술
외과 김동일 과장



6월 17일(수) / 건강365

최신근개 파열 수술
정형외과 방진영 과장



6월 10일(수) / 인생의 연장선

두경부암(설암)
갑상선두경부외과 홍종철 과장

병원진료안내



좋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부산 (051)644-2002 | www.moonhwa.or.kr

진료과목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유방외과, 갑상선외과, 외과 (간담체/대장항문),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부인과내시경수술/자궁근종/산과/난임)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부인과내시경 수술센터, 로봇수술센터, 자궁근종센터, 부인암센터, 산과센터, 자연주의 출산센터, 난임센터, 여성생식기과 선천기형센터, 청소년기 부인과 질환센터, 산생아집중치료센터(NICU) 소아청소년 성장발달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인공신장센터, 유방암센터, 갑상선암센터, 척추센터, 관절센터, 특수운동치료센터, 피부미용성형센터, 건강증진센터, 소아외과&탈장클리닉



좋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부산 (051)322-0900 | www.samsun.or.kr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감염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클리닉 소개 로봇인공관절센터, 인공관절센터, 어깨관절 스포츠의학센터, 스포츠운동치료센터 척추센터, 재활치료센터, 내시경센터, 간담체센터, 인공신장센터, 혈관시술센터, 뇌혈관센터, 심혈관 중재시술센터, 좋은기억력센터, 건강증진센터, 응급의료센터



좋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부산 (051)625-0900 | www.gang-an.or.kr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중환자실내과, 외과 (간담체간 이식외과/대장/항문외과/갑상선내분비외과), 혈관외과, 유방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암센터, 건강증진센터, 유방센터, 안과센터, 갑상선상투경부센터, 소화기내시경센터, 폐장담도센터, 심장센터, 관절센터, 척추센터, 뇌혈관센터, 혈관센터, 외과센터, 간담체간이식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특수운동치료센터, 중추신경계 재활치료센터, 발달의학센터, PET-CT센터



좋은삼정병원
GOOD SAM-JEONG HOSPITAL

울산 (052)220-7500
www.sam-jeong.or.kr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정형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심혈관센터, 척추 및 관절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인공신장센터, 소화기 및 내시경센터, 비뇨기수술센터 영상의학센터, 건강증진센터



좋은선리병원
GOOD SUNLIN HOSPITAL

포항 (054)245-5000
www.goodsunlin.or.kr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 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센터소개 척추 및 관절센터, 암센터, 화상·창상치료센터 심장·혈관센터 뇌·신경센터, 복강경센터, 혈액투석센터, 위·대장 내시경센터, 호흡기 및 알레르기센터, 고압산소치료센터, 당뇨 및 갑상선센터, 건강증진센터



좋은에인요양병원
GOOD AEIN MEDICAL CARE HOSPITAL

부산 (051)520-7700
www.aein.or.kr

내과, 외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뇌졸중(중풍)센터, 뇌손상 재활치료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작업치료실 연하(삼킴)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중증환자 집중치료실, 한방요법실(침, 뜸)



좋은연인요양병원
GOOD YEONIN MEDICAL CARE HOSPITAL

밀양 (055)350-9988
www.yeonin.or.kr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암 전진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한방요법실, 고주파치료실 고압산소치료실, 온열치료



좋은부산요양병원
GOOD BUSAN MEDICAL CARE HOSPITAL

부산 (051)326-0900
www.busanhp.com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노인인학과, 부인과 한방과
뇌손상재활치료센터, 암재활연역치료센터, 작업·연하·통증치료실, 일상
생활동작훈련실, 호스피스실, 중증환자집중치료실, 고주파치료실, 고압
산소치료실, 물리치료실



좋은리뷰요양병원
GOOD RIVERVIEW MEDICAL CARE HOSPITAL

부산 (051)995-0900
www.riverview.or.kr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한방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치료센터, 물리치료실, 통증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실
햇살공원, 옥외공원



좋은주례요양병원
GOOD JURYE MEDICAL CARE HOSPITAL

부산 (051)325-0300
www.goodjurye.or.kr

내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뇌졸중(중풍)센터, 물리치료실, 호스피스실(말기암), 사회복지프로그램실
하늘공원, 야외실터



좋은선린요양병원
GOOD SUNLIN MEDICAL CARE HOSPITAL

포항 (054)245-6060
www.sunlinrmh.co.kr

재활의학과, 비뇨의학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방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재활운동치료실, 로봇/원뿔 치료장비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연하재활치료실 소아재활넷병동)



좋은사랑요양병원
GOOD SARANG MEDICAL CARE HOSPITAL

부산 (051)220-7000
www.goodsarang.kr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산부인과
뇌졸중(중풍)센터, 재활치료센터(운동재활치료, 작업재활치료, 통증재활
치료, 연하재활치료), 중증환자집중치료실 한방요법, 야외실터

독자퀴즈

이번호 퀴즈

○○○은 심장이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나호 정답 & 정답자

뇌동맥류

김○주 남구 유엔로
김○진 수영구 좌수영로
전○수 사상구 가야대로
최○주 부산진구 동성로
한○영 금정구 산성로

응모 요령



2026년 8월 31일(월)까지
QR코드를 통해 응모해 주세요!
정답자(5명)를 추첨하여
신세계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원고 모집

좋은병원들 편집실에서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병원들 편집실

T. (051) 310-9419 F. (051) 316-9295



병원보를 더욱 알차게 만들기 위한 **구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드립니다.



림프부종센터

인공림프관 이식술 (바이오브리징)

200

례

(2026.4. 기준)



인공관절센터

로봇인공관절수술

1000

례

(2026.7. 기준)



암센터

방사선치료

2500

례

(2026.4. 기준)



척추센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수술 (UBE)

250

례

(2026.6. 기준)



좋은문화병원
GOOD MOONHWA HOSPITAL



좋은삼선병원
GOOD SAMSUN HOSPITAL



좋은강안병원
GOOD GANG-AN HOSPITAL



좋은삼정병원
GOOD SAMJEONG HOSPITAL



좋은선린병원
GOOD SUNRIN HOSPITAL



좋은에인요양병원
GOOD AEIN MEDICAL CARE HOSPITAL



좋은에인요양병원
GOOD AEIN MEDICAL CARE HOSPITAL



좋은리버리요양병원
GOOD RIBERI MEDICAL CARE HOSPITAL



좋은부산요양병원
GOOD BUSAN MEDICAL CARE HOSPITAL



좋은주레요양병원
GOOD JUREO MEDICAL CARE HOSPITAL



좋은선린요양병원
GOOD SUNRIN MEDICAL CARE HOSPITAL



좋은사랑요양병원
GOOD SARANG MEDICAL CARE HOSPITAL